

시민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¹⁾

한 정 자 (선임연구위원)

김 경 희 (연구위원)

유 정 미 (위촉연구원)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시민단체 여성참여 현황 및 특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IV. 시민단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시민사회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는 시대로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해온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급신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21세기 시민사회에서 여성 주류화 및 세력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에 여성참여를 활성화시키며,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서 여성의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가부장적 요소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여성을 통합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군부권위주의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시민사회 영역이 확대되면서 출현하였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자

1)

1) 이논문은 2002년 연구보고서 250-3 「시민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발적인 결사를 제약하던 억압적 사회분위기가 약화되면서 탈(脫)정치화 된 시민운동단체들이 활발하게 부상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조희연, 2000 : 134 ~ 135).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NGO 현황을 보면 4,023개의 시민단체와 이들의 지부를 포함하여 총 20,000여 개의 단체가 있다(시민의 신문, 2000). 오늘날 이들 시민단체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청소년운동, 여성운동, 자원활동, 인권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다수의 여성들이 이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한정자 외, 2002).

그러나 시민운동의 장(場)인 시민사회도 그 주체가 되는 “시민권” 개념에서부터 가부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곧 여성들은 기존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시민권을 부여 받게된 결과, 공사영역의 분리 개념에 입각하여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서도 여성의 일차적 영역은 사적영역과 전통적인 성 역할에 한정되거나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조혜원, 1999)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은 “성 인지적 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나 성 차별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정자, 2002).

한편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시민사회 내 명실상부한 운동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합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시민사회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 성차별적 제도와 규범 및 이데올로기 등을 향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극복할 때만이 보다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화, 1996).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시민단체 회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민운동 내에 존재해 온 바, 몰(沒)성적(gender blindness)이고 여성배제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시민운동에 여성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과제를 필히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단체의 현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시민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성차별 극복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고,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여성운동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무한 채 소수의 시민단체가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극히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한정자, 1999a, 1999b; 한국여성개발원, 2002).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현재 NGO내 여성참여 현황을 진단해보고, 시민단체 내부의 가부장적 요소 및 행위자의 성차별 의식을 살펴본 후에 시민단체 여성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B.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 논의 가운데 시민운동의 발전 및 특징을 다룬 논의들을 개관한 후에, 시민사회 연구에 내재된 물성성을 비판하고 나아가 여성주의적 조직논의를 통해 시민운동 조직과 성 인지적 시각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시민단체의 일반적 현황, 시민단체 내 여성 참여 현황 및 여성의 지위, 시민단체의 조직문화, 시민단체의 성차별적 의사결정구조, 운영방식 및 성

별 역할분업 등을 정리하였고, 이어 시민단체 활동가의 남녀평등의식을 살펴본 후에 시민단체 활동의 걸림돌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성격의 시민단체 내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고 보다 궁극적으로 여성통합을 주요 이슈로 다룰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분석과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리고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집단 토론회(focus group study) 등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차별적 현황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부호화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시민운동이라고 지칭되는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19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등장 배경으로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의 효과, 민주주의의 진전, 그리고 자본축적에 따른 계급구조의 진전이다(조희연, 1995 : 300; 원종찬, 1995 : 357 ~ 60).

한국사회에서 민족 민주운동의 고양기였던 1980년대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분석의 결여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회운동에 대한 몰성적 성격은 사회운동의 구분방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 분류는 개량적, 자유주의적, 진보적, 반동적 운동과 같이 매우 일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용어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사회운동으로 이끌어내는 이슈의 종류에 따라 운동을 분류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웨스트와 블룸버그(West & Blumberg, 1990)는 여성들이 집합적이고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을 이슈별로 네 가지의 이념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제적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운동이다.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생존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위협하는 문제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화된 투쟁의 참가자로서 지도자로서 참여해 왔다. 여성들은 지역과 공동체 수준에서 복지, 주거, 직업, 식생활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이슈를 중심으로 참여해왔다. 두 번째 유형은 민족주의적, 인종적, 이슈에 초점을 둔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이다. 역사적인 사례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혁명적인 운동에의 여성들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평화, 환경, 공공교육, 정신건강, 교도소 개혁과 같은 인본주의적이거나 보살핌과 관련된 운동에의 여성들의 참여이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이고 지구적인 가족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가정내의 영역에서의 책임의 확장으로서 공적인 남성들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집합행동을 정당화시켜 왔다. 네 번째 유형은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그룹의 특정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위한 행동가들이 있다.

조직에 대한 여성적주의적 논의는 크게 비근본적(contingent) 접근, 근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내재적(embedded) 접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들 논의는 사회조직의 가부장적 성격이라는 공통적 현상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논의를 간략하게 보면 남녀 불평등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물역사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근본적 접근) 한계가 있으며, 개인이 상황적 맥락에서 우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비근본적 접근) 역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조직을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지는 실천방식으로 이해하는 내재적 접근 안에 앞의 두 관점이 통합되어서 서로 다른 문화, 계급, 지역 등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다른 경험에 대해 구체성을 갖는 관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내재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애커(Acker)로서 그녀는 조직은 이익과 불이익, 착취와 통제, 행동과 감정, 의미와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간의 구별을 통해서 성별화되는 도구라고 말한다. 그녀는 더 나아가 젠더는 조직과정에 첨가되는 하나의 요소라기보다는 성분분석(gender analysis)이 없으면 조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애커는 관료적 조직을 성별화된 하위조직(gendered substructure)이라고 말한다. 성별화된 하위조직은 시공간적인 업무의 배치 속에 놓여 있다. 즉 조직의 구도와 규칙은 남성들의 삶과 전제에 쫓겨

썬 더 가깝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일터에 더 헌신적이며, 여성들은 감정적이고 가정과 가사일에 더 헌신적이라는 전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별화된 하위조직인 관료조직의 권력관계나 속성이 의문시되거나 그 특징이 인식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성중립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Acker, 1992). 애커의 논의가 우리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점은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성분석이 요구되고, 성별화된 하위조직을 남녀간의 권력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적 관점의 조직논의 중 애커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운동조직의 가부장적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지난 10여 년간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쟁점들에서 출발한다. 그 쟁점들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 ‘명망가 위주의 시민운동,’ ‘비민주적 의사소통,’ ‘시민단체의 가부장성 및 몰성성(gender blindness)’ 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차명제, 2000; 조희연, 2000).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민운동 내에서의 여성참여 실태, 조직문화,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서구의 사회운동 조직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운동 조직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의 역사적인 형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미래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하부구조를 비교하고, 조직의 형태와 운동의 종류를 분별하며, 운동이 일어난 국가 구조와 조직문화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때 구체성을 뿜 수 있다(McAdam, 1996).

시민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시민운동이란 군부독재의 퇴진을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왔던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운동으로서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운동형태로서 수용되었다(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1995; 조희연, 1999). 나아가 시민운동은 새로운 운동형태로서 민중운동과 구분되는 구체적 차별점을 운동의 방식, 운동영역, 그리고 운동주체 등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말 이래로 대두된 바, 이전의 정치적 이슈 중심의 민중운동과는 구분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슈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²⁾이다. 민중운동은 노동문제 등 계급적 이슈에 바탕을 하고 있었던 반면, 시민운동은 환경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소비자운동, 중산층 중심의 의식개혁운동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곧 80년대 사회운동의 ‘현장’이 농촌 및 공장이었다면, 시민운동의 현장은 일상생활의 영역 그 자체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연구가 빠질 수 있는 몰성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애커의 영향을 받은 최근의 여성주의적 조직분석은 젠더와 조직에 대한 체계이론(systematic theory)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조직을 젠더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가 확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장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시민운동, 시민단체 등의 용어가 NGO로 통일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이원웅, 2001). NGO는 1949년 U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래 1950년과 1968년의 개정을 통하여 UN헌장 제 71조에 의하여 UN하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1990년대에 와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라 NGO, NPO, 시민단체 등 다양한 개념들을 구분하여 쓰고 있다(김인춘, 1997). 일반적으로 NGO의 판별기준은 비정부, 비영리, 지국적 이슈, 국제적 연대 등 4가지 요소를 사용하며,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말한다. 초기에 NGO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주권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국제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극히 소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각종 국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주권국가 내의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기 시민운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추세이다(박상필, 2000).

소로 인식하고 있다(Harding, 1986; Scott, 1986).

이러한 체계이론적 관점의 조직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 분업의 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운동에서의 성별분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의 운영방식을 파악하며, 단체의 운영방식으로 이슈의 성별분리정도, 성차별적 인사제도, 일상업무 및 주요활동의 성별분업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둘째는 성차별을 강화시키는 조직문화에 관한 것으로 이는 언어나 행위양식,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문화적 풍토 등에 의해서 규명할 수 있다. 조직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학벌주의, 지역연고주의, 연령차별주의, 남성우월주의 등에 대하여 측정한다.

셋째는 개인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성별화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단체 참여동기, 자신의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는 조직에 속한 개인들은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성별화되어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의식할 때는 개인으로 표현하게 되므로 필요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넷째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의 남녀간 의사소통의 성격, 리더십, 여성단체 및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상의 네 가지 쟁점은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민단체 조직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성별화된 특징들을 연구할 수 있는 독자적이면서도 상호연관되어 있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시민단체 조직에서의 여성참여 실태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별분업, 조직문화, 운영방식, 그리고 남성과 여성 참여자들의 정체성 인지 등으로 지표화를 시키고 있다. 시민단체 내에서의 여성참여 실태 파악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운동의 가부장적 성격 및 성별화된 특징들을 규명하고 앞으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III. 시민단체 여성참여 현황 및 특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A.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43.4%, 여성이 56.6%로 여성이 다소 높고, 혼인상태는 기혼(51.2%)이 미혼(47.8%) 보다 다소 높다. 학력은 대졸(58.4%)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14.5%), 고졸 이하(14.1%), 전문대 졸·대학 재학 또는 중퇴(1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 참여형태는 상근 직원이 52.8%, 회원이 47.2%이고, 소속단체 활동기간은 5년 미만이 73.9%로 가장 많고, 다음 5년 이상-10년 미만(19.2%), 10년 이상(6.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단체들은 환경운동, 사회교육과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핵심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대부분은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 단체별 연간 예산 규모는 전국 규

모 중앙단체의 경우 과반수가 연간 10억 이상이고, 그 산하의 광역단위 단체들의 26.7%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33.3%는 1억~3억 원 정도이며, 시군구 단위 단체들의 40%는 1억에서 3억 원 정도 수준이다.

조사대상 단체의 평균 회원 수는 남성이 1,267명, 여성이 1,889명으로 여성회원들이 1.5 배정도 많고, 연령 구성은 10~30대에서는 남성회원의 수가 많으나, 40~50대에서는 여성회원의 수가 훨씬 많다. 자원활동가 중에는 여성이 70%를 차지하나, 전문 자원활동가 중 여성 비율은 28%로 여성들 대부분은 일반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근속년수는 평균 남성 7.05년 여성 5.19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장기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제도 및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남녀평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반면 육아휴직 및 유급 출산휴가 등은 과반수 정도의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탁아시설과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된 여성할당제는 2~3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B. 시민단체의 여성참여 현황 및 성차별적 구조

1. 시민단체 참여 동기

시민단체 활동의 참여동기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개인적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소일거리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사회적 사명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율은 평균값 3.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72.7%에 이르는 다수가 동의가 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기 위하여’에 대해 평균값 3.54점으로 긍정적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63.3%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할 경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평균값 3.37점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수(51.3%)를 차지하는 가운데, 유보적 응답 및 부정적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응답자 비율은 43.8%로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소일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64.6%,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0.5%로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시민단체 참여동기 중요도 : 전체 · 성별

단위 : (인원 수(%))

참여동기 중요도	구 분	전 체	성 별		유의미 검증
			남 성	여 성	
소일거리	전혀 그렇지 않다	594(64.6)	277(69.1)	317(61.2)	F=5.3540 df=[1, 917] p<.0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8(20.5)	74(18.5)	114(22.0)	
	그저 그렇다	83(9.0)	30(7.5)	53(10.2)	
	대체로 그렇다	46(5.0)	17(4.2)	29(5.6)	
	매우 그렇다	8(0.9)	3(0.7)	5(1.0)	
	평균값	1.57	1.49	1.63	
개인능력, 소질발휘	전혀 그렇지 않다	57(6.2)	26(6.5)	31(5.9)	무의미 F=0.0673 df=[1, 923] p<.79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0(10.8)	49(12.2)	51(9.8)	
	그저 그렇다	183(19.8)	72(17.9)	111(21.3)	
	대체로 그렇다	453(49.0)	196(48.6)	257(49.2)	
	매우 그렇다	132(14.3)	60(14.9)	72(13.8)	
	평균값	3.54	3.53	3.55	
소속감	전혀 그렇지 않다	87(9.4)	45(11.2)	42(8.0)	무의미 F=3.2436 df=[1, 924] p<.07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3(16.5)	73(18.1)	80(15.3)	
	그저 그렇다	278(30.0)	111(27.5)	167(31.9)	
	대체로 그렇다	341(36.8)	150(37.2)	191(36.5)	
	매우 그렇다	67(7.2)	24(6.0)	43(8.2)	
	평균값	3.16	3.09	3.22	
사명감	전혀 그렇지 않다	23(2.5)	8(2.0)	15(2.9)	F=8.6689 df=[1, 927] p<.003
	대체로 그렇지 않다	63(6.8)	34(8.4)	29(5.5)	
	그저 그렇다	168(18.1)	53(13.1)	115(22.0)	
	대체로 그렇다	445(47.9)	182(44.8)	263(50.3)	
	매우 그렇다	230(24.8)	129(31.8)	101(19.3)	
	평균값	3.86	3.96	3.78	
사회생활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	67(7.2)	32(7.9)	35(6.7)	F=7.7395 df=[1, 927] p<.00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7(12.6)	67(16.5)	50(9.6)	
	그저 그렇다	267(28.7)	119(29.3)	148(28.3)	
	대체로 그렇다	367(39.5)	142(35.0)	225(43.0)	
	매우 그렇다	110(11.8)	46(11.3)	64(12.2)	
	평균값	3.37	3.25	3.45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계산한 것으로 점수가 3점보다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2.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민단체 역할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이 4.20점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데,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86.3%의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에 대해서는 평균값 2.56점으로 부정적 평가와 중립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어 50.5%에 이르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중립적 평가가 35.9%로 나타나고, 긍정적 평가는 13.6%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값 2.50점으로 부정적 평가와 중립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51.3%에 이르는 과반수가 국민들의 시민단체 참여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표 2> 시민단체 활동 인식 : 전체 · 성별

단위 : (인원 수(%))

활동인식	구분	전체	성별		유의미 검증
			남성	여성	
사회적 중요 역 할	전혀 그렇지 않다	8(0.8)	5(1.2)	3(0.6)	F=16.9847 df=[1, 940]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4(2.5)	10(2.4)	14(2.6)	
	그저 그렇다	97(10.3)	23(5.6)	74(13.9)	
	대체로 그렇다	453(48.1)	181(44.3)	272(51.0)	
	매우 그렇다	360(38.2)	190(46.5)	170(31.9)	
	평균값	4.20	4.32	4.11	
국민의 활발한 참 여	전혀 그렇지 않다	57(6.1)	26(6.4)	31(5.9)	무의미 F=0.0879 df=[1, 931] p<.767
	대체로 그렇지 않다	422(45.2)	186(45.7)	236(44.9)	
	그저 그렇다	389(41.7)	161(39.6)	228(43.3)	
	대체로 그렇다	60(6.4)	30(7.4)	30(5.7)	
	매우 그렇다	5(0.5)	4(1.0)	1(0.2)	
	평균값	2.50	2.51	2.49	
여성의 활발한 참 여	전혀 그렇지 않다	74(8.0)	27(6.7)	47(9.0)	무의미 F=1.9115 df=[1, 928] p<.167
	대체로 그렇지 않다	395(42.5)	169(41.7)	226(43.0)	
	그저 그렇다	334(35.9)	149(36.8)	185(35.2)	
	대체로 그렇다	121(13.0)	58(14.3)	63(12.0)	
	매우 그렇다	6(0.6)	2(0.5)	4(0.8)	
	평균값	2.56	2.60	2.53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계산한 것으로 점수가 3점보다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3. 자신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응답자 자신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압도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자신의 단체활동 인식 : 전체 · 성별

단체활동 인식	구분	전체	성별		유의미 검증
			남성	여성	
단체활동 적극적	전혀 그렇지 않다	20(2.1)	6(1.5)	14(2.6)	F=12.4517 df=[1, 939]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56(6.0)	21(5.1)	35(6.6)	
	그저 그렇다	166(17.6)	52(12.7)	114(21.4)	
	대체로 그렇다	488(51.9)	224(54.9)	264(49.5)	
	매우 그렇다	211(22.4)	105(25.7)	106(19.9)	
	평균값	3.87	3.98	3.78	
일의 전문성	전혀 그렇지 않다	25(2.7)	7(1.7)	18(3.4)	무의미 F=3.2182 df=[1, 934] p<.073
	대체로 그렇지 않다	86(9.2)	36(8.8)	50(9.5)	
	그저 그렇다	215(23.0)	90(22.1)	125(23.6)	
	대체로 그렇다	449(48.0)	196(48.2)	253(47.8)	
	매우 그렇다	161(17.2)	78(19.2)	83(15.7)	
	평균값	3.68	3.74	3.63	
소속감	전혀 그렇지 않다	8(0.9)	3(0.7)	5(0.9)	F=15.4503 df=[1, 932]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2.2)	10(2.5)	11(2.1)	
	그저 그렇다	133(14.2)	41(10.1)	92(17.4)	
	대체로 그렇다	416(44.5)	164(40.6)	252(47.5)	
	매우 그렇다	356(38.1)	186(46.0)	170(32.1)	
	평균값	4.17	4.29	4.08	
사업방향 결정에 영향력	전혀 그렇지 않다	53(5.7)	18(4.4)	35(6.6)	F=19.8711 df=[1, 933]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5(13.4)	45(11.1)	80(15.1)	
	그저 그렇다	301(32.2)	113(27.8)	188(35.5)	
	대체로 그렇다	365(39.0)	174(42.9)	191(36.1)	
	매우 그렇다	91(9.7)	56(13.8)	35(6.6)	
	평균값	3.34	3.51	3.21	
참여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23(2.5)	6(1.5)	17(3.2)	F=15.0129 df=[1, 926]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7.4)	30(7.4)	39(7.4)	
	그저 그렇다	238(25.6)	87(21.6)	151(28.8)	
	대체로 그렇다	442(47.6)	187(46.4)	255(48.6)	
	매우 그렇다	156(16.8)	93(23.1)	63(12.0)	
	평균값	3.69	3.82	3.59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계산한 것으로 점수가 3점보다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단체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 평균값이 4.17점으로 매우 높은 동의율로 82.6%에 이르는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다. 반면 소속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단체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대해 평균값 3.87점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곧 자신의 적극적인 단체활동 참여도에 대해 51.9%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뒤를 이어 단체활동 만족도, 단체활동의 전문성 여부의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단체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 평가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평균값이 3.68점으로 64.4%에 이르는 다수의 응답자가 만족함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균값 3.68점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65.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이 단체의 사업방향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지”여부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34점으로 다른 항목과 비교해볼 때 긍정적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소속감,” “활동의 적극성,” “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사실은 시민단체 활동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단, “의사반영의 충실도”에 있어서는 긍정적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요망되고 있다.

C. 시민단체의 조직문화와 여성참여

1. 시민단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소속단체의 지배문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평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20-29세 연령층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배문화의 평균값은 능력주의(평균값 3.28)가 가장 높고 다음은 권위주의(평균값 2.52), 남성우월주의(평균값 2.35), 연령차별주의(평균값 2.34), 학벌주의(평균값 2.33), 지역연고주의(평균값 2.15) 순으로 높다(<표 4> 참조).

특히, 시민단체 내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소속단체의 문화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벌주의’가 존재한다는 인식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곧 소속단체의 문화인식을 보면, 권위주의, 연령차별주의, 남성우월주의에 대해서는 상근직원, 일반회원, 자원활동가의 순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고(유의미도 모두 $p < .001$), 능력주의는 상근직원, 자원활동가, 일반회원의 순으로($p < .001$) 해당 항목이 시민단체의 주요 문화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시민단체 내 남성우월주의와 학벌주의에 대해 남성보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시민단체의 지배문화로 권위주의, 학벌주의, 연령차별주의, 성차별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면접 대상자들은 시민단체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소수의 지도자 그룹이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이라 인식하며, 이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지향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 4> 소속단체의 문화 인식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인원 수(%))

단체문화 인식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유의미 검증
			상근직원	자원활동가	회원	
권위주의	전혀 그렇지 않다	171(18.6)	47(9.7)	50(33.3)	74(26.2)	F=23.9993 df=[2, 914]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328(35.8)	182(37.5)	51(34.0)	95(33.7)	
	그저 그렇다	223(24.3)	129(26.6)	29(19.3)	65(23.0)	
	대체로 그렇다	169(18.4)	109(22.5)	18(12.0)	42(14.9)	
	매우 그렇다	26(2.8)	18(3.7)	2(1.3)	6(2.1)	
	평균값	2.51	2.73	2.14	2.33	
학벌주의	전혀 그렇지 않다	234(25.5)	105(21.6)	50(33.3)	79(28.0)	무의미 F=2.2516 df=[2, 915] p<.106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3(34.1)	171(35.2)	45(30.0)	97(34.4)	
	그저 그렇다	225(24.5)	135(27.8)	31(20.7)	59(20.9)	
	대체로 그렇다	126(13.7)	63(13.0)	23(15.3)	40(14.2)	
	매우 그렇다	20(2.2)	12(2.5)	1(0.7)	7(2.5)	
	평균값	2.33	2.40	2.20	2.29	
지 역 연고주의	전혀 그렇지 않다	316(34.4)	168(34.6)	66(44.0)	82(29.0)	F=10.1145 df=[2, 915]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8(31.4)	157(32.4)	49(32.7)	82(29.0)	
	그저 그렇다	194(21.1)	106(21.9)	23(15.3)	65(23.0)	
	대체로 그렇다	105(11.4)	47(9.7)	11(7.3)	47(16.6)	
	매우 그렇다	15(1.6)	7(1.4)	1(0.7)	7(2.5)	
	평균값	2.14	2.11	1.88	2.35	
연 령 차별주의	전혀 그렇지 않다	213(23.4)	87(18.0)	53(35.8)	73(26.1)	F=14.2559 df=[2, 909]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337(37.0)	175(36.2)	56(37.8)	106(37.9)	
	그저 그렇다	225(24.7)	133(27.5)	27(18.2)	65(23.2)	
	대체로 그렇다	120(13.2)	80(16.5)	11(7.4)	29(10.4)	
	매우 그렇다	17(1.9)	9(1.9)	1(0.7)	7(2.5)	
	평균값	2.33	2.48	1.99	2.25	
단체문화 인식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유의미 검증
			상근직원	자원활동가	회원	
능력주의	전혀 그렇지 않다	65(7.1)	15(3.1)	12(8.0)	38(13.5)	F=12.4602 df=[2, 909]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0(14.3)	59(12.3)	27(18.0)	44(15.6)	
	그저 그렇다	262(28.7)	142(29.6)	38(25.3)	82(29.1)	
	대체로 그렇다	394(43.2)	233(48.5)	60(40.0)	101(35.8)	
	매우 그렇다	61(6.7)	31(6.5)	13(8.7)	17(6.0)	
	평균값	3.28	3.430	3.23	3.05	
남 성 우월주의	전혀 그렇지 않다	259(28.3)	114(23.6)	62(41.3)	83(29.4)	F=13.7611 df=[2, 913]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78(30.3)	145(30.0)	53(35.3)	80(28.4)	
	그저 그렇다	215(23.5)	122(25.2)	20(13.3)	73(25.9)	
	대체로 그렇다	135(14.7)	83(17.1)	12(8.0)	40(14.2)	
	매우 그렇다	29(3.2)	20(4.1)	3(2.0)	6(2.1)	
	평균값	2.34	2.48	1.94	2.31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계산한 것으로 점수가 3점보다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학벌주의는 활동가의 충원과 단체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졸자 혹은 학생운동

경험이 없는 상근자와 회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연령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 권위주의와 결합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직위가 낮고 연령이 적은 활동가 중에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령차별주의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성차별적 문화가 지배하는 시민단체일수록 여성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이상과 배치되는데 대해, 여성들은 시민단체가 당연히 남녀평등에 대한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학벌주의, 남성우월주의 등 시민단체 조직 문화는 시민단체에 여성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이며, 특히 단체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 시민단체에서 성별 역할분담

설문조사 결과 상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내의 성역할 분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여성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무실 잡무는 여성의 몫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여성들로부터 월등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운영 방식에 대해 자원활동가 및 회원의 평가 역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나, 단체 행사 시 여성회원들에게 동원적이고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운영방식부터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암묵적 승진 및 인사 차별’(3.84), ‘남녀 상근직원 간 성역할 구분’(3.77), ‘남녀회원의 성역할 구분’(3.73), ‘여성의 일상잡무 담당’(3.64), ‘남성중심적 단체활동’(3.29), ‘여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제도 및 문화의 성숙’(3.17), ‘성희롱에 대한 규제’(3.07)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여성 상근자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심층면접 결과 시민단체 안에서의 여성 활동가들은 성별분업 및 승진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곧 시민단체 내부의 역할분업은 성별에 따라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여, 상근직원들 간의 성별분업은 남성-대외활동, 여성-내부관리, 남성들은 연대사업을 수행하고 여성들은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책 결정직 및 주요 업무는 남성들에게 배치하고, 음료 접대나 차 시중, 전화 응대, 팩스 전송과 같은 일상 잡무는 여성 상근자들에게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회원들 역시 성별분업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단체 행사시 음식준비와 같은 가사노동 성격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성 상근자들은 승진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평간사 가운데는 여성 비중이 큰 반면 간부급에는 남성 비중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승진소요 기간이 길며, 같은 직위에서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중요 부서에 배치되고 있다.

<표 5> 상근직원의 단체내 성역할 인식 : 전체 · 성별

단위 : (인원 수(%))

성역할 인식	구 분	전 체	성 별		유의미 검증
			남 성	여 성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내부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11.8)	21(9.5)	33(14.0)	무의미 F=1.4124 df=[1, 454] p<.235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20.2)	41(18.6)	51(21.6)	
	그저 그렇다	131(28.7)	67(30.5)	64(27.1)	
	대체로 그렇다	127(27.9)	69(31.4)	58(24.6)	
	매우 그렇다	52(11.4)	22(10.0)	30(12.7)	
	평균값	3.07	3.14	3.01	
*여성에 대한 승진 및 인사차별이 암묵적으로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5(30.7)	76(34.1)	69(27.6)	F=10.0226 df=[1, 471] p<.00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8(37.6)	94(42.2)	84(33.6)	
	그저 그렇다	88(18.6)	33(14.8)	55(22.0)	
	대체로 그렇다	54(11.4)	17(7.6)	37(14.8)	
	매우 그렇다	8(1.7)	3(1.3)	5(2.0)	
	평균값	3.84	4.00	3.70	

성역할 인식	구 분	전 체	성 별		유의미 검증
			남 성	여 성	
여성 상근직원이 담당하는 이슈와 남성 상근직원이 담당하는 이슈는 대개 따로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7(29.1)	66(29.6)	71(28.6)	무의미 F=1.5698 df=[1, 469] p<.21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8(37.8)	91(40.8)	87(35.1)	
	그저 그렇다	76(16.1)	33(14.8)	43(17.3)	
	대체로 그렇다	72(15.3)	30(13.5)	42(16.9)	
	매우 그렇다	8(1.7)	3(1.3)	5(2.0)	
	평균값	3.77	3.84	3.71	
*같은 이슈에서도 여성회원의 역할과 남성회원의 역할이 대개 따로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1(25.6)	52(23.3)	69(27.6)	무의미 F=0.1092 df=[1, 471] p<.74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0(40.2)	96(43.0)	94(37.6)	
	그저 그렇다	85(18.0)	43(19.3)	42(16.8)	
	대체로 그렇다	66(14.0)	30(13.5)	36(14.4)	
	매우 그렇다	11(2.3)	2(0.9)	9(3.6)	
	평균값	3.73	3.74	3.71	
사무실 내에서 일상적인 잡무는 주로 여성들이 하게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9(31.6)	88(39.5)	61(24.5)	F=37.4873 df=[1, 470] p<.0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4(30.5)	76(34.1)	68(27.3)	
	그저 그렇다	62(13.1)	30(13.5)	32(12.9)	
	대체로 그렇다	92(19.5)	28(12.6)	64(25.7)	
	매우 그렇다	25(5.3)	1(0.4)	24(9.6)	
	평균값	3.64	3.40	3.31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문화가 성숙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4.7)	7(3.2)	15(6.1)	무의미 F=0.7430 df=[1, 465] p<.389
	대체로 그렇지 않다	85(18.2)	40(18.2)	45(18.2)	
	그저 그렇다	176(37.7)	81(36.8)	95(38.5)	
	대체로 그렇다	160(34.3)	84(38.2)	76(30.8)	
	매우 그렇다	24(5.1)	8(3.6)	16(6.5)	
	평균값	3.17	3.21	3.13	
단체의 활동방식이 남성 중심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80(17.0)	39(17.5)	41(16.5)	무의미 F=3.3905 df=[1, 469] p<.066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1(29.9)	69(30.9)	72(29.0)	
	그저 그렇다	111(23.6)	60(26.9)	51(20.6)	
	대체로 그렇다	114(24.2)	51(22.9)	63(25.4)	
	매우 그렇다	25(5.3)	4(1.8)	21(8.5)	
	평균값	3.29	2.40	3.20	

* 문항은 역산한 것임. **평균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계산한 것으로 점수가 3점보다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이에 승진차별과 성별분업의 원인에 남녀간 능력차이의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설문조사에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가 여성 상근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상근자들은 운동에 대한 신념, 상황대처 능력,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성별 격차가 나타나며 여성 응답자의 평가가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접 결과, 실제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반면, 리더십과 대외활동력에 성별간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성별고정관념의 반영이며 동시에 여성들에게 이를 성장시킬 훈련 기회가 부족했음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미루어 여성에게 성차별적 업무를 배치하는 문제점은 여성들로 하여금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능력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고정관념에 입각해 단체 내부의 단순 업무만을 할당함으로써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며, 시민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단체활동 참여를 저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 시민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

본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25%가 ‘그저 그렇다’고 답한 반면, 75%는 시민단체 내의 의사소통, 남녀관계, 조직구조, 리더십이 토론지향적이며 평등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서는 단체 성격에 따른 의견 차이를 나타내, 전국규모 중앙단체의 시·도 단체 평균값이 3.72로서 토론지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전국규모의 중앙단체는 평균값이 3.18로 상대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일반 여성회원이 남성회원 보다 1.5배 많았던 것에 비해 단체 내의 각종 의사 결정직에서의 여성참여는 남성의 1/3 ~ 1/4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접결과에서도 면접대상자들은 여성회원, 여성상근자들이 시민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지도자·간부·임원 중심의 의사결정과 비공식적 의사결정 방식은 시민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함은 물론, 여성들의 참여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F. 여성의 단체활동 참여의 어려움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 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 10개 응답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여성 활동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시간부족, 재충전 기회 부족, 업무과다, 전문성 및 능력 부족 등을 보다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사나 육아 및 가족의 반대와 같은 가족적 요인은 시민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단체 차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단체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로는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으로부터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와 가사노동 부담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다.

심층면접 결과 여성들의 단체활동 어려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시간 부족의 문제는 남녀 활동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으나, 특히 육아부담을 지고 있는 기혼여성들로부터 절대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시민단체 남녀 활동가들은 대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보다는 시민운동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단체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근자들은 활동비 부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회원 면접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이 상근자들로 하여금 시민단체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육아문제를 여성들의 단체활동 참여에 가장 큰 어려움이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이외에 시민단체 활동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무엇보다 시민단체 사업 성격 자체를 들 수 있다. 곧 시민단체 사업이 이슈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일상사업의 비중이 약화되고, 여성회원들이 단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슈사업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으나 이슈사업이 비대해지는 경우, 시민단체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여성들의 단체활동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

시민단체 활동과 사업이 상근자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여성회원들은 단체 활동에서 동원적 성격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동원적 성격의 참여는 여성들의 능동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여성참여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운동이 상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민단체가 안고 있는 자원부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소수의 상근직원이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회원사업 영역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장시간 노동구조로 인해 회원들이 직장생활과 단체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 더불어 회원들의 시민의식이 미성숙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성인지적 관점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시민단체 활동 시 여성관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남녀평등의식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의외로 시민단체의 남녀 활동가 대부분이 성인지적 관점 수용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체들에서 시민운동의 중심 방향은 성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상근자들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고 개선 의지를 갖는 것은 소속 단체를 성평등하게 개혁할 수 있는 촉진요소가 될 것이다. 단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투사형 남성운동가 모델을 수용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 활동가들이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함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의식있는 남성 활동가들의 부족과 의사결정직에 참여하는 여성 수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G. 시민단체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 활동에 여성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음 7가지 방안 - ‘탁아시설 설치’(평균값 4.38), ‘육아 휴직기간 경력산정’(평균값 4.28), ‘남녀평등의식교육’(평균값 4.17), ‘성희롱 및 성폭력 내규 정비’(평균값 4.13), ‘정규 노동시간 준수’(평균값 4.09), ‘보직순환제 실시’(평균값 3.97), ‘임원 및 상근직원에 여성할당제 도입’(평균값 3.65) - 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탁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여성, 20대와 30대 연령층, 기혼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시민단체 여성참여 활성화에 관한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남녀 모두 높은 응답율은 보인 항목은 ‘육아문제 해결’(여성 48.2%, 남성 36.2%)이었다. 다음은 ‘여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남성 16.5%, 여성 12.4%), ‘여성 스스로의 자각’(남성 15.0%, 여성 10.9%), ‘가사분담’(여성 13.9%, 남성 11.0%)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여성모임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단체 중 53개 단체가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여성단체와의 연대 활동은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간의 보다 폭넓고 긴밀한 연대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간 연대활동은 한국여성민우회, YWCA,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같이 종합적인 성격의 전국 규모 여성단체들로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과 주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내 여성모임의 형태는 회원모임, 상근자 모임, 단체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모임이 있다. 여성모임의 중요성은 여성회원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고 나아가 시민단체 안의 가부장성을 극복하려는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으로 역할 함으로써, 시민단체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IV. 시민단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단체 여성참여 활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단체내 주요 보직자, 상근자, 회원 대상의 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민주시민의식 제고,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 진정한 삶의 방식을 성찰토록 하는 사회의식 제고, 여성(gender)의식 제고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단체 대표 및 임원을 포함한 남녀 상근자·일반회원 대상의 시민의식교육·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남녀평등한 단체문화 육성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한다. 공식·비공식 장에서의 평등한 조직문화 육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로(言路)의 민주화와

토론문화 진작, 모범적인 여성 리더십모델 개발 및 확산, 단체 내 성역할 구분 불식, 시민단체에서의 성인지적 시각 강화와 여성의 가치 인정, 회원 참여 위주로 단체문화 개선, 그리고 기타 조직 내 건전 문화 육성 등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내 여성참여의 질적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 운영방식을 개선시켜 나간다. 곧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의사결정직 및 주요직책에 여성할당제 도입, 상근직원의 남녀비율 균등 배분, 보직순환제 도입과 대외활동에서의 여성 우선 배치, 여성 상근자의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 5일 근무제와 정시 출·퇴근제 정착, 평간사 협의회 운영 및 남녀평등 촉진 특별기구와 여성관련 부서 설치·운영, 여성우대 제도와 여성지도력 양성 지원 제도 도입, 기타 반성폭력·성희롱 내규 제정, 성평등한 시민단체 운영 지침서(manual) 개발·보급, 그리고 시민단체 내의 성역할 구분을 뛰어 넘어 성 평등한 역할과 업무분담 등이 요구된다.

넷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공동탁아소 운영, 육아 휴직제 도입, 육아·탁아 지원 및 수당 지급, 지방과 국가차원의 지역 및 공공탁아시설 확대, 그리고 여성상근자를 위해 오전·오후 선택 시간근무제 및 주(週)중 반(半) 상근제 등 탄력 근무제 도입이 요구된다.

다섯째,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상근자의 정보통신·조직관리·정책개발·현장분석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시, 여성 회원 및 상근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해외연수 실시, 여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 기회 부여, 그리고 여성들에게 시민단체 내 활동에서의 참여기회 및 적극적인 역할 부여 등이 요구된다.

여섯째, 시민단체 여성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방안으로는 시민단체 내 남녀평등 연수체계 도입, 성인지 교육의 정례화와 여성학의 대중화 구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적 실시와 정치의식 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남녀평등문화 진작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남녀평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서 시민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일곱째, 여성들의 시민단체 참여를 위한 동기유발 방안으로는 여성회원을 위한 위원회 및 소모임 강화, 가·미혼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사업 개발, 여성상근자 모임 활성화, 여성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문화활동의 장 활용 등을 강구한다.

여덟째,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의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민단체가 상근직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 회원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회원의 참여를 통해 회비수입을 증액하도록 하며, 현재 시민단체들이 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직접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요구되며, 상근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비(임금)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시민단체를 위한 세제 감면과 같이 시민 단체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나아가 시민 참여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시민 의식 교육을 공교육 체계에 수용하도록 한다.

아홉째, 여성 상근자들의 일과 가정의 이중역할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 및 육아공동참여, 여성의 보살핌 역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탁아·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열째, 여성의 시민단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제시를 위한 모범 사례 발굴·확산, 사회

전체의 민주화, 일상생활에서의 남녀평등화 그리고 자원봉사의 생활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여기서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성회원의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의 문화를 남녀평등적, 회원중심적, 민주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여성 소모임이나 여성위원회 등을 조직·운영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증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여성의 요구도를 충실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평간사들을 위한 모임 활성화, 단체 내 원탁회의를 이용한 남성 간사들의 여성(gender) 의식 고양, 보직순환제 도입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임원직 및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참여 할당제 도입,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여성 리더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도모하도록 한다.

끝으로 현재 시민단체는 시민의 참여가 부재한 상근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시민중심의 시민단체 운영 및 시민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제시한 운영방식의 개선,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문구, 1992, “민주적 변혁운동 지반의 심화, 확장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제 16호(겨울).
- _____, 1993, “변혁지향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경제와 사회』, 제 18호(여름).
- 김동춘, 1999, “한국사회운동 100년,” 『경제와 사회』, 제 44호(겨울), 한울.
- 김동춘 외, 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 김세균, 1992, “그람시를 넘어야 한다,” 『경제와 사회』, 제 16호(겨울), 한울.
- 김영래, 1998, “비정부조직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4호.
- 김은실, 1996,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한국학술단체협의회 발표문(미간행).
- 김인춘, 1997, “비영리영역과 NGO들,” 『동서연구』, 제9권 제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녹색연합, 1997~ 2000 대의원총회 자료집.
- 박상필, 2000, “NGO의 개념적 논의,” 『NGO의 의미와 한국의 NGO활동』, 한국 NGO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학술 세미나, 2000. 11. 17.
- 신광영, 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유팔무 · 김호기 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알랭 투렌, 1980,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개,” 정수복 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위르겐 하버마스, 1987,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새로운 사회운동 : 항의와 잠재력,” 정수복 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이원웅, 2000, “한국의 NGO연구 : 이론적 쟁점과 과제,” 『NGO의 의미와 한국의 NGO활동』, 한국 NGO학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학술 세미나, 2000. 11. 17.
- 임현진 · 공석기, 1997,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사회과학』, 제 19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임희섭 · 양종희 공편, 1998,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국가-시민사회의 변모』, 나남출판.
- 장미경 외, 1996, “여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미간행).

- 정철희, 1995,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한국사회학』, 29 : 501~532.
- 정수복, 1995,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 출판사.
- 정종권, 2000,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 사회』, 제 45호(봄).
- 정태석, 1996,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시민사회 개념의 비판적 의미찾기,” 『현대사회의 이해』, 문화와 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 _____, 2001, “6월 항쟁 이후 한국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경제와 사회』, 2001년 봄호, 한국산업사회학회, 한울.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출판.
- 조돈문, 1995,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경제와 사회』, 제28호(겨울).
- 조희연, 1993, “새로운 정치현실과 진보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 제 18호(여름).
- _____, 1995,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유팔무,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_____, 1999, “참여연대 5주년의 평가와 반성,” 『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출판부.
- 차명제, 1999, “한국시민사회 발전과 과제,” 주성수 편저, 『새천년 한국 시민사회의 비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 “21세기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의 전망,” (미간행 원고).
- 클라우스 오페, 1985, “새로운 사회운동 :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정수복 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한국시민의 신문, 2000, 『한국민간단체총람 1999』.
- 한정자, 1984, “여성단체 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여성 의식화교육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1집, pp.111~142.
- 한정자 외, 2000, “지역여성단체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학논집』, 17집, pp.227~255.
- Acker, J., 1973, “Women and Social Stratification : A Case of Intellectual Sexism,” in J. Huber, ed. *Changing Women in a Changing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0, “Hierarchies, Jobs, Bodies : A Theory of Gendered Organizations,” *Gender and Society*. 5 : 390~407.
- _____, 1992, “Gendering Organizational Theory,” in A. J. Mills and P. Tancred eds. *Gendering Organizational Analysis*. Sage : 248~60.
- Buechler, Steven, 1995,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3).
- Cohen, Jean L., 1985, “Strategy or Identity :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 663~716.
- Ferguson, K., 1984, *The Feminist Case Against Bureaucracy*. Temple University Press.
- Halford, Susan and Mike Savage and Anne Witz, 1997, *Gender, Careers and Organizations : Current Developments in Banking, Nursing and Local Government*. Macmillan Press.

- Kanter, R. M., 1976, "The Impact of Hierarchical Structures on the Work Behavior of Women and Men," *Social Problems*. 23 : 415 ~ 30.
- _____,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Kriesi, Hanspeter, 1989, "New Social Movements and the New Class in the Netherlan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5) : 1078 ~ 1116
- _____, 1996,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n a Political Context," in McAdam, Doug, John McCarthy, Mayer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 Louie, Miriam Ching Yoon, 1995, "Minjung Feminism : Korean Women's Movement for Gender and Class Liber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8(4) : 417 ~ 430.
- McAdam, Doug, John McCarthy, Mayer Zald. eds.,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 Melucci, Alberto,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 : 199 ~ 226.
- Randall, Vicky and Georgina Waylen, 1998, *Gender, Politics and the State*. Routledge.
- Reinelt, Claire, 1995, "Moving onto the Terrain of the State : The Battered Women's Movement and the Politics of Engagement," in Ferree and Martin ed., *Feminist Organizations : Harvest of the New Women's Movement*. Temple University Press.
- Shorrock, Tim, 1986,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the Rise of Anti-Americanism," *Third World Quarterly*.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 197 ~ 217.